

광주·전남 벤처, K-IP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

〈기술력·지식재산〉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밋업데이’
제품 소개부터 현지 투자 연계와 사업 매칭, 협업 가능성 타진
AI·에너지·식품·바이오 유망 기업들 투자·기술 협력 본격화

광주·전남 지역 벤처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식품·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앞세워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술력에 지식재산(IP)을 결합한 이른바 ‘K-IP 전략’을 통해 국내 시장을 넘어 중국과 인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K-IP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밋업데이’를 열고 지역 내 IP 기반 유망 벤처기업과 해외 네트워크 간 기술 교류·투자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와 중국 웨이하이시정부 주한국대표처 등이 참여해 해외 진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AI·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모빌리티, 식품·바이오 등 광주·전남의 전략 산업을 대표하는 벤처 기업이 참여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사업 모델과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제품 소개부터 현지 투자 연계와 사업 매칭, 협업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 벤처 규모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날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 활동(IR)에 나선 ‘에코피스’는 AI 기반 수질 관리와 오염원 제거 로봇 기술을 앞세워 환경·레저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EV)·에너지 저장 장치(ESS) 기반 에너지 솔루션 기업 ‘그린코어’는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원 등 지역 벤처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K-IP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밋업데이’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를 바탕으로 해외 에너지 기업·환경 등과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해상 가공 특허 기술을 보유한 ‘해신’은 중국 등 해외 식품 시장을 겨냥한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했고, ‘아이엠에스유니온’은 AI 키오스크 기반 관광·숙박 무인화 플랫폼으로 세계 서비스 진출을 준비

중이다.

행사 막바지에는 지역 벤처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진행됐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 중국 웨이하이시정부 주한국대표처는 K-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협력 확대, 세계 거점 사무소 구축, 기술 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벤처업계는 이번 밋업데이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민간 주도의 글로벌 육성과 해외 네트워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내수의 존도가 높은 지역 벤처 생태계에서 해외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는 성장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벤처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인도, 동남아 등 해외 협력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화와 투자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광주·전남 수출 위축 우려 커져

한은 광주전남본부 보고서…“GEPU 지난해 수준뎀 수출 11% 감소”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관세 정책 및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광주·전남지역 주력산업 수출이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전남지역의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이 타 업종 대비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관세로 인한 원자재 공급 불안 등이 지역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한은)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광주와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5%, 34.3%로 집계됐다. 이 중 광주는 자동차(47.7%)가 제조업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고, 전남은 석유정제

(31.2%)와 화학제품(29.5%)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지역 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밀집된 구조에서 광주·전남은 GRDP 대비 수출 비중도 2024년 기준 38.6%, 59.7%로 전국(36.4%)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특정 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선언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광주·전남 주력 산업들도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독일·한국·일본 등 18개국의 국가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활용해 도출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수(GEPU)’가 1단위 상승하면 광주·전남지역 주력산업들의 수출액은 평균 0.0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anzi연 한은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지난해 수준으로 GEPU가 움직이면 광주·전남 주력산업 수출 규모는 1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년(476억 달러) 기준으로 52억 40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광주·전남 주력산업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관련 업계 전반에서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지역경제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전남과 광주가 13억 7000만 달러, 4억 달러씩 감소하고, 고용 측면에서도 전남(7100명)과 광주(5400명) 모두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안 과장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리스크 분산 정책,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 수출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금호고속·건설, 한파 대비 ‘버스 휴게실’ 운영

금호고속과 금호건설은 “혹한기 건설 현장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이동형 버스 휴게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동형 버스 휴게실은 작업 구간이 넓고 이동 동선이 긴 토목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호고속은 보유 중인 버스를 활용해 이동형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금호건설은 이를 신안 생비량

국도, 송산 서측연결도로 등 토목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버스 휴게실은 무시동 냉난방 설비를 갖춰 혹한기 추위와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현장 반응과 운영 효과를 확인해 이동형 버스 휴게실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형 버스 휴게실 운영이나 지원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062-360-8191)으로 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가맹점 생존율·폐업 점포 수·위약금 미리 공개

프랜차이즈 ‘깜깜이 계약’ 퇴출

가맹본부는 앞으로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이나 폐업 점포 수 및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의 구체적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이처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60.54포인트(1.19%) 오른 5145.39로 출발한 이후 오전 11시께 5183.44까지 오르며 지난 27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084.85)를 갈아치웠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3.7원 내린 1422.5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210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1조383억원을 순매도하며 상단을 제한했고, 외국인도 142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1.82% 오른 16만24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역대 최초로 ‘16만 전자’를 달성했다. SK하이닉스도 5.13% 급등한 84만1000원으로 마감해 ‘80만닉스’를 굳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0.93포인트

장기 생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 생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1~3년간 폐업한 가맹점 수, 개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기간별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 가맹점 희망자가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잔여기간에 따라 평균치를 제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 가맹본부는 사모펀드(PEF) 가맹점의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자본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5200선 가시권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

코스피가 28일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100고지에 올라선 채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대 시가총액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60.54포인트(1.19%) 오른 5145.39로 출발한 이후 오전 11시께 5183.44까지 오르며 지난 27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084.85)를 갈아치웠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3.7원 내린 1422.5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210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1조383억원을 순매도하며 상단을 제한했고, 외국인도 142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1.82% 오른 16만24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역대 최초로 ‘16만 전자’를 달성했다. SK하이닉스도 5.13% 급등한 84만1000원으로 마감해 ‘80만닉스’를 굳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0.93포인트

기아, 4분기 매출 28조 분기 최대…영업익은 관세 부담에 32% 감소

2년 연속 매출 100조원 돌파

기아가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은 다소 흔들렸지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힘입어 2025년 4분기 매출 성장을 이어나갔다. 연간 기준 2년 연속 매출 1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28일 2025년 4분기(10~12월) 연결기준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기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사업 계획과 실적 지침을 제시했다.

기아의 지난해 4분기 판매 대수는 글로벌 기준 76만 32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악화로 5.6% 줄었으나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하이브리드 수요와 인도 쏘렌토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

한 수준을 유지했다.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늘었다. 4분기 매출액은 28조 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며 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균판매가(ASP) 상승과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매출 확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수익성은 관세와 경쟁비용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8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6.6%를 기록했다. 미국 관세율이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조정됐지만 기존 재고 영향으로 약 두 달간 25% 관세 부담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됐고 북미·유럽 시장 인센티브 증가도 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친환경차는 실적 방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

다. 지난해 4분기 친환경차 판매는 18만 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12만 1000대로 20% 이상 늘었으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전체 판매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23.9%로 전년보다 2.4%p 높아졌다.

연간 기준 친환경차 판매는 74만9000대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각각 23.7%, 18.9% 늘어 성장을 견인했고 친환경차 비중은 24.2%까지 확대됐다.

기아는 올해에도 친환경차 중심 성장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올해 판매 목표를 335만대, 매출은 122조 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170.81 (+85.96)
▲ 코스닥	1133.52 (+50.93)
↓ 금리 (국고채 3년)	3.067 (-0.027)
↓ 환율 (US D) 〈오후 5시 50분 기준〉	1428.15 (-18.05)